

전남도, '플라즈마 가스에너지화' 추진

한국에너지, 울촌산단 2021년까지 5500억 투자 폐기물·해양쓰레기 등 활용 전기·열 생산 국내 최초... 道·동부권 6개 시·군·한국에너지 협약

전남도가 폐기물과 해양쓰레기 등을 활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친환경 플라즈마 가스에너지화사업'에 나선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다.

전남도는 15일 "지난 1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이낙연 전남지사와 여수·순천·곡성·구례·고흥·보성 등 동부권 6개 시·군 관계자, 남덕진 한국에너지(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플라즈마 가스에너지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플라즈마 가스에너지화는 에너지 전문기업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플라즈마 기술을 도입해 가정,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해양쓰레기 등을 순간 온도

섭씨 5500도에서 녹인 뒤 여기에서 발생된 가스로 전기와 열을 생산·공급하는 최첨단 사업이다. 플라즈마란 초고온에서 음전하를 가진 전자와 양전하를 띤 이온으로 분리된 기체 상태를 말한다.

협약에 따라 한국에너지(주)는 울촌산업단지에 2021년까지 5500억원을 들여 1일 1200t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가스를 활용해 68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특수목적법인인 한국에너지(주)는 신한은행으로부터 4600억원 규모의 투자방향서를 받았으며, 군인공제회로부터도 투자를 받을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폐기물 매립 부지 확보 문제, 침출수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환경오염 문제, 악취로 인한 환경미관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또 연간 11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22만t의 이산화탄소 절감이 예상된다.

남덕진 대표는 "플라즈마 가스에너지화사업은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이 가장 뛰어난 사업"이라며 "국내 최초의 광역권 플라즈마 사업을 전남에서 추진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전남을 신재생 에너지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플라즈마 가스에너지화사업은 자원순환형 모델을 구현하는 것으로, 농업·축산업·임업 등에도 적극 적용돼야 한다"며 "시·군 폐기물 처리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난 1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남덕진 한국에너지(주) 대표와 친환경 플라즈마 가스에너지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금용 구례부군수, 명창환 순천부시장, 이용부 보성군수, 이 지사, 남 대표, 이승우 여수부시장, 김신남 곡성부군수, 주순선 고흥부군수. <전남도 제공>

“서울~제주 고속철 국가철도망 구축 반영을”

추진위, 사업 타당성 재검증 촉구 결의문 발표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추진위원회'가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사업 타당성 재검증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호남고속철 2단계 종착역인 목포에서 제주까지 해저터널 등으로 연결해 고속철도로 서울과 제주 간을 연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추진위는 한국물류학회, 한국문화산업학회와 공동으로 학회 회원, 관계 전문가, 건설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지난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이

재훈 본부장이 '서울~제주 고속철도 주요 쟁점 진단', 경주대 김규호 교수가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과 지역관광의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재훈 본부장은 정보 부족으로 인한 오해 해소를 위해 제주도민의 생각, 1일 관광지로의 전략 우려, 경제적 타당성 등 7가지 쟁점에 대한 객관적 분석 자료를 제시하면서, "서울~제주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는 박정성 한국물류학회 회장, 박종삼 한국문화산업학회 회장, 양근을 한국철도기술원 부원장, 원제무 한양대학원 명예교수, 이정록 전남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천일염 인력난 해소 채염기 470대 공급

전남도가 고품화, 열악한 근로 여건, 낮은 임금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57억원에 들여 채염 자동화 기계 470대를 도내 염전에 공급한다. 채염기는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노동력이 가장 많이 들고 힘든 작업을 자동화시켜주는 장비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사용하기 편하고 성능이 뛰어난 채염기를 공급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14개 업체가 18개 제품을 응모함에 따라 천일염 생산자 단체와 전문가들로 장비선정위원회를 구성, 현장 실물 시연회와 식품 적합성, 사용자 안전성, 조작 및 유지보수 편리성, 작업 처리 능력, 품질 보증 등을 심사기준으로 해 최종 8개 업체 9개 제품을 선정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주목! 20대 국회 광주·전남 새얼굴

국민의당 이용주(여수 갑)

“여수 현안 울촌2산단 완공 주력 누리과정시행령 등 바로 잡을것”

여수에서는 오랜만에 정치신인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당 소속 이용주(48) 당선인이 그 주인공. 여수시갑에 출마한 이 당선인은 총투표수 7만 1980표 가운데 3만1241표(43.91%)를 얻어 2만4498(34.43%)표를 얻는데 그친 더불어민주당 송대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여수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34회)에 합격한 이 당선인은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을 거쳐 창원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태원 변호사 등을 지냈다. 당에서 법률 담당 원내 부대표까지 맡아 주목을 받고 있는 초선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총선 후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선거 전처럼 상·경로당·교회 등을 일일이 방문해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또 워크숍에 참석하는 등 등원 준비도 하고 있다. 소속 상임위원회 윤곽이 나오면 보좌진 구성도 마칠 것이다.

-선거 승리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나.

▲국민의당 바람도 있었지만 새로운 사람이라는 측면, 여수에서는 첫 범조인 출신이라는 점, 또 처음으로 여수 출신으로 여수에서 중·고교를 나온 온전한 여수 사람이라는 점 등이 여수시민에게 어필한 것 같다.

-희망하는 상임위는.

▲농해수위를 우선 지망했고 다음으로 산업위를 지원했다. 여수의 최대 현안 중 하나는 울촌2산단 완공인데 해수부 소관이다. 또 여수에는 산업단지가 많아서 산업위를 희망하고 있다. 그런



농해수위·산업위 지망

총선 녹색돌풍 요체는

정권교체 세력 선택한 것

더민주와 경쟁·협력해야

대 당에서는 법사위를 가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 고민 중이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또 20대 국회 내내 중점을 두고 할 일은.

▲19대 국회 때 민주주의에 역행했던 부분을 바로 잡을 것이다. 누리과정 예

산 관련 시행령,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등이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국회 활동도 중요하지만 대선 때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녹색돌풍' 즉 국민의당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그 요체는 뭐라고 생각하나.

▲호남인들은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알고 있다. 그런데 더민주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권교체를 준비할 수 있는 세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국민의당을 선택한 것이다.

-3당 체제 하에서 국민의당의 역할은. 더민주와 관계 설정은

▲더민주가 없어서 할 당은 아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경쟁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38석 정당에 불과하지만 그 숫자 이상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호남정치 복원'이란 화두가 오르내리는데, 바람직한 호남정치의 방향은.

▲호남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남이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지원 당 TF팀장을 맡았는데 향후 계획은.

▲현재 임내현 의원과 원외의 변호사 2명과 얘기하고 있다. 더민주와 공조도 필요하다. 상임위 윤곽이 나오면 자료를 요구하는 등 활동을 서두를 것이다. 검찰이 아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여론에선 국정감사에서 불거질 이 사건의 수사를 늦춰 정작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쏟아지면 그때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답변을 회피하려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 中 우호교류지역에 전남 알린다

10개 지역 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전남도가 우호교류협약을 맺은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들을 16일부터 5일간 초청해 전남지역 곳곳을 소개하고 투자 유치 및 관광객 증대와 관련 자문을 받기로 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상하이사, 충칭시, 저장성, 장시성, 장쑤성, 산둥성, 후난성, 쓰촨성, 산시성 등 10개 우호교류 지역 공무원 18명을 초청해 전남을 알리

는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초청연수는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기간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전남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의 위상을 높이고 전남에 대한 중국 공무원들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이들에게 주요 역점사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와 고소득 생명농업 육성 방안, 전남의 투자 여건, 관광자

원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광주전남연구원 조창원 원장, 연구원 구본태 소장의 '전남·중국 지방정부 교류현황과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도 연다.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화순 주자묘 등 중국 인연 유적지, 구례자연드림파크 등을 안내해 전남을 이해하는 계기도 제공한다.

전남도는 이번 중국 공무원 초청 연수가 한·중 공무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협력 확대·심화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눈매교정술



졸린 눈, 짙은 눈꼬리가 처진 눈, 쌍꺼풀 없이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

비절개 눈매교정술

눈꺼풀을 절개하거나 당기지 않으며, 눈꺼풀 안쪽으로 실을 넣어 눈을 뜨는 근육의 일부를 묶는 방법으로 눈매를 교정합니다. 현미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절개법에 비해 부기가 적고 회복기간이 짧아, 크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과에서 눈 성형은 미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눈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 시술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 세밀하고 전문적인 수술에 익숙한 성형안과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진료내용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 중추신경계
 - 뇌신경계: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 척추신경계: 외상성척추손상, 척수종양, 척수염
- 근골격계
 - 수술 후 회복 재활: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 통증재활: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암케어병동·치매·중증·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사 협력 진료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